

# 주부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 주부의 마음상함 상황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actice of Bibliotherapy Program for Housewives

- The Focu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Wounded Emotion of Housewives -

김 수 경(Soo-Kyoung Kim)\*

### 〈 목 차 〉

I. 서론	1. 근원가정에서 마음상함
1. 문제제기	2. 부부관계에서 마음상함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자녀관계에서 마음상함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시집관계에서 마음상함
4. 연구의 한계와 의의	5. 일상생활에서 마음상함
II.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과정	6. 주부자리에서 마음상함
1. 오리엔테이션	IV. 결 론
2. 매회 진행과정	1. 프로그램에 대한 인도자의 평가
3. 프로그램 평가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III. 참여자가 말하는 주부의 마음상함	

### 초 록

이 연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실행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밝히고 있다. 하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참여자들이 말하는 주부의 마음상함의 상황에 대한 분류와 이에 대한 분석이다. 주부들의 마음상함은 크게 여섯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주제어: 독서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 독서치료 활동, 마음상함의 상황, 주부, 공공도서관

### ABSTRACT

This study is a practice of bibliotherapy program for housewives in the public library. The Writer describes on process of bibliotherapy program. She then analyzes the situation of Wounded Emotion of Housewives. She divides the situation into six points.

Key Words: Bibliotherapy, Bibliotherapy Program, Bibliotherapy Action, Situation of Wounded Emotion, Housewives, Public Library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외래교수(ksk1101@hotmail.com)

• 접수일: 2005년 2월 22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 I. 서론

### 1. 문제제기

올 설에 나는 가까운 친지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쉴 사이 없이 며느리인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홀대를 받았는지를 토해내는 60대 여성을 만났다. 어른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어른 대접만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시어머니로 인해 며느리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 기억의 조각들을 꿰어서 줄줄이 늘어놓으시며 성토를 하셨다. 게다가 부모 모시는데 반드시 만이만이 해야한다는 법칙은 어디 있느냐며 시어머니 수발 때문에 그 동안 큰 마찰 없이 지내던 아래 동서에게 마음상한 이야기까지 보태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다. 그간에 보인 시어머니의 처사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 한 집에 있으면서도 마주하기도 싫다는 이야기였다. 그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병이 드셔서 큰아들인 자신의 집에서 주로 모시다가 최근 작은집과 번갈아 가며 몇 달씩 모시고 있다 한다. 자신은 말며느리이지만 몸도 불편해서 집 안 살림도 하기 어려운데 시어머니의 수발은 현실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까지 수반한다는 요지였다.

그이는 부부교사로서 평생을 초등학교에 봉직하다 2년 전 교장으로 퇴임한 우리 사회에서는 제법 엘리트층에 속하는 분이시다. 항상 그분을 보면 당당하고 분명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시다가도 시어머니와 대면만 하면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없으셨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분은 이러한 자신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가까운 자매간 외에는 못하다가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도 이번이야 그 분의 입을 통해 직접 그 사연을 듣게 되었다. 주위 동료 선생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으며 깜짝 놀란다고 한다. 왜 진작 말을 못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면 내가 돌아오는 순간까지도 화를 삭이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 만성 위궤양으로 약을 장복하고 식이요법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또 이해가 되었다.

내가 이와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상한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분에 대해 나는 그래도 며느리가 노인을 너무 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부의 마음상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부들과 만나면서 며느리의 입장에 많은 공감을 해서 인지 그 분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 뒷방에 누우신 그 시어머니도 불쌍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평생 마음에 명을 지고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아픔은 어떻게 달래야 하며, 그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일까?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고부간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를 포함하여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상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장면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독서치료는 비교적 최근에 떠오른 마음 치유방법이지만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연구자인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관심 또한 뜨겁다. 김정근은 독서치료의 현단계가 이제 독서치료가 긴 준비기를 거쳐 이룩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우리 분야에서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이룩기'를 통과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서가 주도하고 도서관이 기반이 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단계<sup>1)</sup>라고 한다.

독서치료 상황이 '이룩기'에 접어들어 시점에서 독서치료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나는 연구 주제와 방법이 좀더 세밀하고, 세부적이면서 실천적이고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한 근거는 연구자가 소속해 있는 부산대학교 책·정·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와 실천 활동이 '사서 주도의 도서관 기반의 프로그램 모형을 지향하는 것<sup>2)</sup>과 같은 맥락이다. 얼마 전 연구자와의 대화 중에서 다른 분야에서 행해지는 독서치료와 비교하면서 김정근은 "문헌정보학에서 현재 독서치료의 방향은 우리는 고급 호텔 음식을 만드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질 좋은 대중음식을 만들어 보급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현재 이룩기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셨다.

연구자는 독서치료의 현단계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상황에서 독서치료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공공도서관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픔을 주는 가정에서 핵심역할을 하지만, 또 주변부 권력을 가진 주부들의 마음 상함에 주목하게 되었다. 도서관 기반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주부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제 계획하여 적용한 사례는 드물었다.

연구자는 이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공공도서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적용한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선행 연구 문헌들 속에서 주부들의 마음상함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러한 주부의 마음상함을 치유하기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보았다.<sup>3)</sup> 그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활동 중에 치유적 말하기에서 드러난 참여 주부들의 마음상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여 상황으로 분류하고 이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주부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상황 개발과 매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1) 김정근, "김정근의 독서치료이야기 : 독서치료의 현단계," 도서관문화, 제46권 제2호(2005, 2), p.49.

2) 김정근,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의 연구와 실천" 도서관계, 제15권 제 5호(2005, 2).

3) 김수경,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권 제 6호(2004, 6), pp.243-272.

###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대상인 프로그램 참여자는 부산 남구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2003-하반기와 2004-상반기에 개설된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교실’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주부들이다. 참여자들의 특성은 모두 전업주부이며,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결혼 기간은 5년에서 15년 정도가 되며, 자녀는 1~3명 정도를 두고 있다. 가족 동거 형태는 대부분 부부 독립형이며, 일부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sup>4)</sup>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일종의 해석학적 현상학<sup>5)</sup>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독서치료의 참여자인 동시에 인도자의 경험을 가지고 참여자들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마음상함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한 자료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활동 중에서 참여자들의 치유적 말하기 과정을 보조연구자와 연구자가 기록해 둔 노트를 참고하였다.

자료 정리는 여러 참여자들의 특유의 말씨와 언어를 어느 한 톤으로 통일시키지 않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가급적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다소 어법이나 문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리고 괄호안은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첨가한 부분이다.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또한 연구자는 인도자인 동시에 참여자로서 반응하기도 하고, 원활한 대화의 진행을 위해 인도자 역할도 한다. 인도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여기서는 생략되었으며, 연구자가 참여자로서 반응은 참여자들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다.

### 4. 연구의 한계와 의의

이 연구의 한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주부의 경험을 분석하여 분류한 상황<sup>6)</sup>이므로 주부의 마음상함의 상황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연령대, 결혼 년수, 가족구성원, 교육의 정도, 생활수준, 독서내력 등 다양한 변수별로 나타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활동 양상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주부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에 대해 그들의 활동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해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종의 사례 연구로서 참여자들

4) 상계논문, p.262.

5) “해석학이란 용어는 원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성경구절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해석하던 작업을 가르키던 용어였다. 문예부흥시기에 이러한 해석학적 전통이 변화되어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쓴 사람의 의도와 글 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학적 전통이 경험 세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읽을 원본과 세계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들이 책을 읽는 상황처럼 경험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그러한 상황이 비유된다.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글쓴이의 상황이나 욕구, 필요, 그들의 사회적인 세계 등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책이나 경험을 이해하려면 해석학자들은 글 쓴 사람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 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L. S. Barrit et al.,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홍기영 역(서울 : 문음사, 1990), pp.66-67.

의 반응 속에서 그들의 마음상함의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주부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마음상함의 상황을 분류할 때 연구자가 미리 설정된 어떤 이론적 기준이나 언어 분석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말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유사한 상황으로 묶었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독서치료를 통해 실제 주부들의 마음상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발굴할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매체를 바탕으로 상황별 혹은 참여자 계층에 적합한 매체를 개발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 II.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과정

###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첫 회에는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독서치료의 정의와 그 역사적 배경, 독서치료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과 참여자들이 해야 할 활동에 대해 개괄적인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인 인도자에 대한 소개와 이 프로그램을 열게 된 동기에 대해 알렸다.

그 다음으로는 강좌 운영에 참고가 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는 '책 고르기 위한 지침'이라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익명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연령, 결혼 년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었고, 매체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다. 즉,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며, 25가지 제시된 주제 중에 읽고 싶은 주제 고르기, 가장 기억에 남는 책 3권, 바꾸고 싶은 자신의 사고방식·습관·행동은 무엇이며,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강좌 수강 동기와 강좌를 통해 얻고 싶은 것 등에 대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질문지 작성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소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 읽을 매체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 2. 매회 진행과정

이 연구에서는 '상황 중심, 치유서 중심, 참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은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상황이 제시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상처의 부위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매체가 따른다. 이것은 일종의 처방이다. 상처의 부위에다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형식이다. 한편,

걸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특징도 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자(participant)를 프로그램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이다.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책읽기를 함으로써 치유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치료 이론에서 말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의 경험 이 참여자 자신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담보되고 체화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 진행자(presider)는 기획자(planner)이며 조정자(coordinator)이다.”<sup>6)</sup>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 읽은 치유서는 다음 <표 1>과 같다.

매회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인도자는 매회마다 주어진 치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치유서를 읽고 쓴 인도자의 글이나 부산대학교 책·정·연에서 생산된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서 안내」<sup>7)</sup>의 해당 치유서에 대한 글을 제시하였다. 이 글들은 대체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첫째는,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로서 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 없이 책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 즉 초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책은 나에게 무엇이었는가’는 책을 읽고 자신의 느낀 점을 쓴 것이며, 셋째, ‘이 책은 누구에게 권하고 싶은가’는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 권해주고 싶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치유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제시하면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도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하게 되며, 먼저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치유적 말하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도자는 이 치유서를 읽은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했는지, 이해 안된 부분은 없었는지, 책 구하기는 힘들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묻고, 자유롭게 답하며 치유적 말하기 분위기로 유도하였다. 그런 다음 각 참여자마다 돌아가며 책 읽은 소감을 말하거나 글을 써 오신 분들은 그 글을 읽고 이야기를 한다. 치유적 글쓰기는 대체로 참여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몇몇을 제외하고 글쓰기를 해온 참여자들은 드물었다. 무엇보다 책읽기가 쉽지 않은지 책을 다 못 읽고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다. 책을 읽지 않았더라고 다른 참여자들의 치유적 말하기 맥락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였다.

인도자의 역할은 수용하는 태도로서 경청하며 듣고, 호응하기도 하며 다른 참여자들이 말하는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질문이나 좀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질문 등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책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어서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 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해설이나 인도자가 읽은 소감과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이야기의 초점을 다시 잡고, 참여자의 자기 경험이나 주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책의 내용과 다소 무관한 이야기지만 참여자들이 대다수가 공감하고 문제시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6) 김정근,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 사서와 도서관 기반의 접근을 생각하며” 경기도 사서연구회지(2004, 12), p.25.

7)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편집위원회 엮음,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서 안내,”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기논고집, 제12집, (2003).

그 주제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표 1〉 남구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매체

회차	구분	2003- 하반기에서 사용된 매체	2004- 상반기에서 사용된 매체
1	상황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매체	프로그램 계획서, 설문지	프로그램 계획서, 설문지
2	상황	가부장사회와 여성	일상의 벽
	매체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	리차드 킬슨.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1』(정영문 옮김). 창작시대, 1998.
3	상황	어른들의 몰이해	딸과 여자의 자아
	매체	김정일.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박영출판사, 2002. 마리나 피카소.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백선희 옮김). 효형, 2002.	메리 파이프. 『내 딸이 여자가 될 때』(김영혜·김영재 옮김). 문학동네, 1999.
4	상황	성과 사랑, 가정주부	성과 사랑, 가정주부
	매체	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김재희 옮김). 이프, 2001.	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김재희 옮김). 이프, 2001.
5	상황	한국 남성의 정체성	결혼과 이혼
	매체	전인권. 『남자의 탄생』. 푸른숲, 2003. 비디오 시청. “한국 남자 이렇게 만들어진다(TV 책을 말하다, KBS)”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또하나의문화1995.
6	상황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처	아이들의 아픔과 왕따
	매체	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 보리, 2001.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 보리, 2001. 문선이 글, 박철민 그림. 『양파의 왕따일기』 파랑새어린이, 2001.
7	상황	사랑의 본질, 정신분석학	자녀와의 대화법
	매체	스캇 팩. 『아직도 가야할 길』(신승철·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2(개정판).	하임 G. 기너트. 『부모와 아이 사이』(신홍민 옮김). 양철북, 2003(완전개정판).
8	상황	마음상함의 원인과 대처방법	마음상함과 화의 원인과 대처방법
	매체	베르벨 바르테츠키. 『따귀맞은 영혼』(장현숙 옮김). 궁리, 2002.	베르벨 바르테츠키. 『따귀맞은 영혼』(장현숙 옮김). 궁리, 2002. 틱낫한. 『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최수민 옮김). 명진, 2002
9	상황	마음의 상처 치유 사례	가부장사회와 여성
	매체	나오미 글라쎌 위음. 『뒤음의 병을 고친 사람들 이야기』(조성희외 옮김). 사람과 사람, 1998.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
10	상황	아버지의 역할	가정폭력과 성폭력
	매체	사이토 사토루.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이규은 옮김). 종문화사, 2002.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2001. 사미라 벨릴. 『나는 인생을 믿는다』(용경식 옮김). 마음산책, 2003.
11	상황	어머니의 역할	부모 역할
	매체	사이토 사토루. 『어머니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송진섭 옮김). 종문화사, 2002.	사이토 사토루.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이규은 옮김). 종문화사, 2002. 사이토 사토루. 『어머니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송진섭 옮김). 종문화사, 2002.
12	상황	프로그램 평가	정신분석학, 프로그램 평가
	매체	평가 설문지	스캇 팩. 『아직도 가야할 길』(신승철·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2(개정판). 평가설문지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지만, 참여자들의 특성상 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하는 참여자들도 있고,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참여자도 있다. 그럴 때 인도자는 활발하게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큰 제재를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른 참여자들의 말을 들어보자고 유도를 하였다. 입을 열지 않는 참여자들에게는 느낀점 한 마디라도 하도록 격려했다. 인도자가 지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은 대체로 대인관계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경우로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 중의 하나가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것도 이의 훈련과정이라는 의도였다. 책을 읽지 않은 참여자들에게도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날의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 회에 읽을 매체를 안내하면서 마무리를 하였다.

### 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회에 이루어졌다. ‘독서치료교실을 마치며’라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체크 또는 서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는 2003-하반기 5명, 2004-상반기 7명이었다. 복수형 체크도 있고, 응답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질문지에 참여자수와 체크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평가질문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인상에 남는 치유서와 그 이유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매체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참여자들이 읽은 것을 체크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세 권의 책을 골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둘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거나 문제 해결이 된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 대한 4지 선다형 질문에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① ‘프로그램 중 토론을 통해서 가2003- 하반기에는 4명이었고, 2004-상반기에는 6명이었다. ② ‘책을 읽는 중에’가 2003-하반기에는 1명이었고, 2004-상반기에는 2명이었다. 그리고 ③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는 2003-하반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2004-상반기에는 4명이었다. ④ 기타 의견은 없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치유적 말하기’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가장 치유를 많이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책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4지 선다형 질문에 2003-하반기에는 ① ‘어휘가 낯설고 어려웠다’가 3명이었고, 2004-상반기에는 4명이었다. ② ‘분량이 많았다(시간이 부족하였다)’에서는 2003-하반기에는 2명이었고, 2004-상반기에는 1명이었는데 한 두 권만 많았다는 답변이다. ③ ‘내용 수용이 힘들었다’ 2003-하반기에는 2명이고, 2004-상반기에는 1명이다. ④ ‘기타 의견으로는 2003-하반기에는 없었고, 2004-상반기에 ‘육아, 가사에 대한 시간 분배의 실패’와 ‘계를 러서’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어휘가 낯설고 어려웠다’가 많았는데, 이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신이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 3권은 무엇이었냐고 했을 때, 참여자들은 주로 소설과 에세이류를 많이 꼽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자가치유서 계통의 책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어휘

가 낮설고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표 2〉 가장 인상에 남는 치유서와 그 이유

순위	2003- 하반기	2004- 상반기
	〈치유서〉: 이유	〈치유서〉: 이유
1순위	<p>〈어머니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다.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식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게 되었다.</p> <p>〈나는 제사가 싫다〉</p> <p>〈아직도 가야할 길〉: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 책이었다.</p>	<p>〈학대받는 아이들〉: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잘 드러나 있었다.</p> <p>〈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공감이 갔다.</p> <p>〈부모와 아이 사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일이 조금 해결되는 느낌이다.</p> <p>〈나는 제사가 싫다〉:- 가부장제에 대한 작가의 도전 ·생활 ·교육 방식에서 활력과 에너지를 받았다.</p> <p>-시원하고 강렬한 언어로 표현되어서</p> <p>-가부장제로 인한 남녀불평등이 된 오랜 사고의 관습을 돌아보게 하였다.</p> <p>〈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명상을 하고 체험적인 글과 실천의지를 볼 수 있다.</p>
2순위	<p>〈아주 작은 차이〉:부부간의 미묘한 문제에서 남편 탓만 하다가 결국 나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를 바로 보니 남편이 보였다.</p> <p>〈학대받는 아이들〉: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p> <p>〈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p> <p>:자식들을 너무 품속에 껴안고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p>	<p>〈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살아가는 데 지침서가 될 것 같다</p> <p>〈부모와 아이 사이〉: 우리 모녀기간의 지침서 같은 기본이다.</p> <p>〈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가족과 부모를 한번 더 생각해 본 책. 한 번 더 읽고싶다</p> <p>〈내 딸이 여자가 될 때〉: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음과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한 아이들의 사례가 좋았다.</p> <p>〈따귀 맞은 영혼〉: 책은 다 못 읽었지만 마음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p> <p>〈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임상경험 사례로 저자의 따뜻한 생각이 느껴져 안정감이 있었다.</p>
3순위	<p>〈학대받는 아이들〉</p> <p>〈마음속의 그림책〉미술치료라는 생소한 분야를 알았으며, 스किन쉽이 사랑에서 절실함을 느꼈다.</p> <p>〈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p> <p>〈어머니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가족내의 억압과 어머니의 자기희생이 가져다주는 폐약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다.</p>	<p>〈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었다.</p> <p>〈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어머니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가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책인 것 같다.</p> <p>〈아직도 가야할 길〉:-훈육과 사랑에 대해</p> <p>-정독하며 생각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다.</p> <p>〈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생활 속에서 문제극복방법을 잘 찾을 수 있었다.</p> <p>〈부모와 아이사이〉: 아이와 대화할 때 지침서</p> <p>〈화〉: 수도자의 마음이 신선하게 읽혔다</p>

넷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변화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서술한 답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자신이 치유되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아이에게, 가족에게 향한 시선을 나에게 돌려 나 자신을 찾고자 한다 3) 나도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4) 책읽기가 부담스럽지 않았고, 주제별로 읽을 수 있어 좋았다.

다섯째, 강좌를 마치고 난 소감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글을 남겼는데 2003년 하반기 참여자들의 것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책 읽기가 조금은 힘들었지만, 재미있게 다녔다.

어렴풋이 생각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책읽기를 통해서 드러났다. 나 자신이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보였다. 결혼전이나 신혼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 생각들을 무디게 한 것 같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 남편의 출세 등을 내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았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굴레'를 알았으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지 알게 되었다. 선생님(인도자)의 토론 마무리 설명은 이해하지 못했던 글들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도 풀지 못한 지식사랑과 교육방법은 나의 필수과제로 계속 책을 통해 답을 얻어야겠다. 독서토론(치유적 말하기)은 나의 생활에 새로운 발견이었으며, 이를 이끈 선생님과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평가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를 삼을 수 있었다.

### Ⅲ. 참여자가 말하는 주부의 마음상함

이 장에서는 치유적 말하기 과정에서 보인 주부들의 반응을 중점으로 마음상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치유적 말하기 과정에서 반응한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상황별로 분류해보았다. 이것을 분류하는데 주부의 마음상함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을 참조하였다. 즉, 주부들의 마음상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공통적인 영역으로는 배우자관계,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문제, 가사노동문제와 건강문제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시 주부들의 스트레스는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가사작업수행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를 들 수 있다. 사람의 생활환경, 특히 가정 생활의 모든 영역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sup>8)</sup>

이 연구에서는 주부인 나를 중심으로 주부라는 위치에서 오는 마음상함과 자라온 환경, 현재 살아가는 환경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마음상함의 상황을 분류하였다. 즉, 주부가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했을 때,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맺은 관계로는 근원가정에서 마음상함이 있었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부부·자녀·시집 관계에서 마음상함이 있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마음상함과 자기 자신, 즉 주부라는 이름의 마음상함이 있었다.

8) 김수경, 전개논문, p.255.

여기에서는 근원가정, 부부관계, 자녀관계, 시집관계, 일상생활, 주부자리에서 오는 마음상함 등 여섯 개의 큰 상황으로 마음상함을 분류하고, 각 상황마다 또 세부적으로 갈래를 나누어 참여자들의 마음상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1. 근원가정에서 마음상함

주부인 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자라오면서 맺은 관계에서 마음상함의 진원지는 근원가정이다. 김정근은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마음상함의 주범으로 다음과 같이 근원가정에 대해 정의한다. “독서치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다. 상처의 원인은 무엇이고, ‘가해자’는 누구인가, 계속 따라다니며 기억을 덮치는 상처의 주범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캐고 들어가 보면 답은 비교적 쉽게 나온다. 답은 별로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가정이 가장 화근으로 떠오른다. 이른바 ‘근원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 ‘근원가정’에는 누가 있는가? 다 이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있다. 형, 누나, 동생도 있다. 그리고 근원 가정의 연장으로서 일가친척이 있고, 외가 사람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크고 작은 상처가 이들 ‘근원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거기서 생긴 상처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근원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어른’은 강자로서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자로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된다.”<sup>9)</sup>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 근원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부모 혹은 어른들의 권위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파생된 상처이다. 다른 하나는, 자라면서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딸로서 받은 상처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만이로서 받은 마음상함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가부장적인 부모의 태도에서 마음상함

가부장 사회에서 한국형 가부장적인 남성과 함께 살아온 주부들은 가부장 사회의 수직적 질서 속에서 마음상함을 경험한다.

이 비디오 보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술 드시고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용돈도 주시며 분위기가 자유스러워졌어요. 평소에 아버지는 교육자-시골 학교 교장선생님을 지내셨어요- 션기 때문에 매사가 지시형이셨어요. 상하관계는 잘 하셨어도 수평적인 관계는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을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 맺는 것 같아요. 나는 노력 안 해도 되는 관계를 너무 힘들게 노력을 하면서 맺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요. 오히려 오히려 남동생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별히 보호하고 잘 기르려고 한 것 때문에 유약해졌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정말 저도

9) 김정근, “‘어른’이라는 이름의 폭력,” 도서관계 제4권 제6호(2004, 8).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6권 제 1호)

아이들을 구분해서 키우지 않고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2003-하반기 5회차, 김미순)

위의 참여자는 KBS 'TV책을 말하다'에서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을 소개하는 “한국 남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보고 자신의 유년시절의 한 단면을 떠올린다. 즉, 참여자는 평소에는 가족들이 아버지의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억눌리며 살다가 술을 드시면 집안 분위기를 유하게 하시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런 권위적인 사고와 행동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버지를 이어 남편을 통해서도 확인함으로써 한국 남성의 권위적인 태도가 길러진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자식 교육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아들, 딸을 차별해서 키우지 않아야겠다는 지침을 얻는다.

저의 오빠도 유사하게 여형제들에 비해 유약해요. 저희집도 1남 4녀인데, 아버지께서 월남 하셔서 가족이 없어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고, 아이들을 아주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별로 구분없이 키우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엄마가 은연중에 오빠를 '동굴속 황제'로 만드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빠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끝없이 보살피 주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빠가 어느 날 술을 한 잔 하며 저에게 어머니가 왜 자기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안주고 여자 형제들만 끼고 도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외롭다”며 울먹였어요. 이걸 보면서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형제들은 자라면서 많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할말 안 할말 다 하며 풀고 살았는데, 오빠는 혼자라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해를 낳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세계로 숨어드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2003-상반기, 5회차, 인도자)

위 참여자의 말에 동의하며 인도자는 이러한 한국 남성의 권위의 상징인 ‘동굴속 황제<sup>10)</sup>’를 키우는 데는 어머니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한다.<sup>11)</sup> 저자는 이러한 한국 남성들의 고독하면서도 유약한 ‘동굴속 황제’의 모습을 결국 권위주의의 문제로 본다. 그리고 권위주의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반대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을 감소, 단절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10) 저자는 ‘동굴 속 황제’에 대해 두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인간형이라고 말한다. 첫째는 모성의 공간에서 양육되고 남성적 질서에 의해 완성된, 한국의 가족문화가 낳은 인간이다. 둘째는, 모든 인간관계를 진선미의 우월성에 따라 상하의 신분관계로 설정하는 ‘신분적 인간(a man of status)’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선미가 위계적 질서를 이루고 있던 봉건사회에서 정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 인간이다. 동굴 속 황제는 이 본질적인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특징들도 갖고 있다. ... 자신의 우월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한다. ... 어린 시절, 아버지의 권위를 혐오하고 타파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속절없이 아버지를 닮아버리는 유형의 인간이기도 하다. 전인권, 남자의 탄생 (서울 : 푸른숲, 2003), pp.293-294.

11) 저자는 저자의 어머니 세대에서 여러 자녀에 대한 ‘분리사랑’ 대신 오늘날 어머니들이 한 두 자녀들의 요구에 ‘즉각적 만족의 육아원리’에 의한 자식 교육이나 가정 내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학습한 대로 권위주의를 조장한다면, 아버지의 권위는 확실히 추락했고 가정은 상당히 민주화되었음에, 오히려 강화된 ‘동굴 속 황제’로 아이들이 길러질 수 있다는 한국형 황제의 세습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남성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족내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 도자는 위와 같이 한국형 동굴 속 황제로 자라온 남자 형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 나. 아들 딸 차별에서 오는 마음상함

다음의 사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형제 내 남녀 차별을 당한 경우이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평등하게 키우려고 노력해요. 제가 클 때는 남녀 차별 심하게 당하면서 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남존여비 생각이 짙은 남편과 아이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 일일까지 마찰이 많아요. 저는 1남 4녀 중 세째딸이었는데, 모내기철이면 남동생 본다고 학교도 못 갔어요. 마당에 무우 묻어두는 데 그 두엄 위에 서서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바라보며 나도 학교 가고 싶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엄마 원망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연세가 68세인데, 외할아버지 원망하고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여자는 글 배우면 괜히 바람 들어 안된다'며 방문 걸어 잠그고 말리셔서 글을 못 배웠대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형편이 안되어서 (딸들) 공부 못 시킨 것도 있었지만, 외아들(남동생) 하나는 어떻게든 공부시킬려고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 좋은 옷에 음식에 편애를 많이 하셨어요. 줄줄이 딸 낳다가 남동생을 낳기 위해 제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차별없이 키우고 싶는데 남편이 아주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질서를 잡아요. 밥 먹을 때도 아버지가 수저 먼저 들어야 먹을 수 있고, 아버지 나갈 때도 아이들이 다 따라나가 인사해야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남편하고 많이 싸워요. 이 걸(남자의 탄생 비디오)보니 애 아빠도 동굴 속 황제로 키워졌겠다 싶네요. (2003-하반기, 5회차, 서정남)

서정남씨는 평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그다지 책 내용에 대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 는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남편의 보수적이고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고 하였다. 서정남씨가 유독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계속 불만 섞인 발언을 하는 데는 자라면서 받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기까지 하였다. 아직도 모내기철에 동생을 돌본다고 학교 못 갔던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서였다. 또한 서정남씨의 어머니는 자라면서 아들 딸을 차별하며 키운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학습된 방식대로 또 자식을 차별하며 키운다. 위 사례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참여자들도 어릴적 부모에게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딸을 비하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 부모의 차별의식은 결혼을 하고서도 딸을 대하는 태도와 아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고 한다.

#### 다. 만이로서 받은 마음의 상처

한국사회에서 장남으로서 괴로움을 윤희영씨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왜 나는 장남으로 태어났을까!” 살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었다. 장남이라는 꼬리표는 어린 시절 기상 시간에서부터 인사하는 예절, 대학입시, 직업선택, 나아가 결혼에 이르는 과정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개입했다. 단지 삼신할머니 앞에서 앞장서 줄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쏟아지는 그 모든 책임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싫었다. 동생들 앞을 지나 내 앞에만 놓여진 노릇노릇한 생선토막도 싫었고 새 옷도 싫었다. 그럴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나는 왜 장남으로 태어났을까...”<sup>12)</sup>

장남으로 길러져 자기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장해야 했던 대한 민국의 장남들의 심증이 잘 담긴 말이다. 그러면, 참여자들이 겪은 장녀로서의 마음상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책임이 너무 무거워 장녀라는 게 자라면서 참 싫었거든요. 살기 힘들어 나와 어쩔 수 없었다하더라도 우리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저는 아이를 풀어서 키우는 편이에요. ‘말이에게 부담주기’ 정말 싫어요. 어릴 때 동생이랑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첫째인 게 너무 싫어서요, 친정 엄마는 저희 형제들 보고 잘 키워서 참 고맙다고 하세요. 저는 엄마 속 안 썩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어리광 한번 부리지 못했어요. 반항도 한번 못해 봤구요. 지금 이렇게 시집 와서 살면서도 시댁일 제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장녀 기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신랑한테 엄마, 아빠에게 못했던 것 어린애처럼 해봐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제가 요즈음 사춘기라고 말해요.(2004-상반기, 11회차, 김정민)

김정민씨도 딸이로서 부모님께 신경 쓰이게 하지 않으려고 어리광 한번 못 부리고 반항도 한번 못해보고 살았다고 한다. 결혼을 하고서도 시댁에서 ‘장녀 기질’을 발휘하여 시댁의 문제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으로 자신의 큰 아이에게는 부담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말이가 과도한 책임을 지며 ‘조숙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이 결혼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임경아씨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사회에서 장남과 장녀는 특히 조숙한 아이로 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첫째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장남, 장녀에게 부여하는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장녀로 크면서 그랬던 것 같고, 신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누이가 카드빚으로 전세금까지 날린 지경인데, 그 빚을 자기(남편)가 떠 안아야 한대요. 요즈음 이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요.(2004-상반기, 11회차, 임경아)

‘말이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은 부모 살아생전에는 말이가 대리 부모와 가게의 후계자로서, 부모

12) 윤영무,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 (서울 : 명진출판, 2004), pp.6-7.

가 죽어서는 제사 봉양과 묘지관리인으로서 역할 하도록 하여 영원히 부모의 지배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해서도 남성은 부모 대신으로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고, 여성들은 시댁에서 만며느리 의무를 또 해야한다. 이것 또한 가부장 문화가 길러낸 서열문화와 효문화에서 비롯된 마음상함이다.

## 2. 부부관계에서 마음상함

부부관계는 '부부는 일심동체'며 촌수도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이지만, 헤어지면 바로 남이 되는 가깝고도 먼 관계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부부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대부분 남편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되었다거나 의존적이라는 것과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었다.

### 가. 대등한 관계가 아닐 때 마음상함

우선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것에서 오는 마음상함이 있다.

신랑하고 싸울 때 저는 제가 말을 안 해요. 혼자서 삭이는 편이지요. 남편은 집안 일도 안 도와 주고, 주말에 아이 데리고 놀러 가는 법도 없어요. 게다가 약간 의처증도 있어요. 밖에 나다니는 것 아주 싫어하고 남자를 특히 조심하라고 늘상 아래 동생에게 하듯이 일러요. 저는 그게 아주 화가 나요.(2004-상반기, 8회차, 이현진)

남편이 아내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동생이나 아이 대하듯 한다면 부부간에 대등한 관계는 성립이 안되며 대화 또한 어렵다.

저희 언니는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형부와의 관계에서도 정신적으로 동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니 부부는 대화를 할 때 같은 수준에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비해 저희 부부는 남편이 집에 오면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 살림살이나 의논할 집안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지,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편은 집에서 저와 대화할 때 주로 듣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듯해요.(2003-하반기, 4회 정준영)

대부분의 관심사가 가정사에 한정된 전업주부의 생활 조건으로 인해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과의 대화 주제는 대체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 집안 경제나 대소사에 대한 이야기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것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듯이 이야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 이 또한 주부에게는 마음상함이다.

나. 성관계에서 마음상함

부부간에 일상생활에서나 대화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성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결혼한지 12년 되었는데 처음 결혼해서 부부관계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3년 동안 임신이 안되어 마음고생도 많았어요. 임신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의무적인 관계를 많이 가졌어요. 임신한 기간동안은 또 성관계를 못해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스트레스 쌓인다고 짜증을 엄청 냈어요. 아이 낳고는 아이 키우고 힘들지만, 그 동안 좋지 않았던 관계 회복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생활 리듬이 달라 제가 자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요구를 하면 저는 정말 싫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자는데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제가 정색을 하고 “나는 일방통행이 싫다”고 하며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랬음에도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너무 불쾌해서 심하게 다투면서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수용하면서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2003- 하반기 4 회차 이희연)

부부의 성관계에서도 상대의 의사를 배려하는 예의는 있어야 한다. 아내를 남편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방적인 관계는 부부간의 강간, 폭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희연씨는 다행히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수용한 남편의 노력으로 극복된 경우이다.

다음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이다.

남편은 늘 내게 성적 매력이 없다고 해요. 저는 성에 대해 입에 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성격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내 얘기 같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남편에 종속되고,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듯해요. 특히 ‘혼인임무’라는 말에 참 공감이에요. 아이에게 매달리다 보면 24시간도 모자라는 것 같고, 또 밤이 되면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 부부간의 성생활이 혼인임무라는 것 말이에요. 남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니까 급기야 남편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불감증인지 아닌지 병원가보라'라고 했어요. 저는 성관계가 너무 싫어요,

첫 애 낳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 1년에 성관계를 한 두번 했을까요, 그런데도 둘째가 생겼어요, 남편은 밤이 괴롭대요, 남편은 말로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을 아주 좋아해서 매주 산행가요, 지금 결혼 8년차인데 신랑이 부부관계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지금은 포기상태인듯해요, 그런 욕구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한번 당해봐라’하는 생각으로 요즘은 요구가 거의 없어요, 나는 안 하니까 사실 편한데, 친구들이 너무 방치하면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에 (의무감으로도)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 노력해요,

요즘은 작은 아이가 5살이고 큰 아이가 7살이어서 어느 정도 육아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집안 일도 익숙해져서 마음도 편해지니까 나도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여성들이 쉴 수 있는 ‘피정의 집’ 같은 것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성)불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 외국 여성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게 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감이 있구나 싶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정말

나를 정확히 보고 싶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가지니 너무 힘들어요.(2003- 하반기 4 회차 김명화)

혼인임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김명화씨는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급기야 남편은 불감증이 아닌지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까지 하게 되고, 너무 성관계를 피하니 까 남편은 다른 해소책을 찾을 정도로 부부간의 성관계는 소원해보인다. 위와 같이 명화씨가 자신의 남편과의 성 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하자 그녀는 성에 대해 가진 편견, 이를 가지게 된 배경,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첫날밤의 아픈 기억, '여자는 흥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과 '(성을) 밝히는 여자'라고 할까봐 남편에게 성관계를 먼저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대화를 기피하고 억제한 이야기 등 그 동안 남편과 쌓인 이야기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이런(성과 관련된) 얘기는 아무나 하고 못하죠. 형제들하고도 말이지요. 나는 5남매 중에 셋째예요. 오빠가 돌이고 여동생이 둘에 딱 중간이지요. 저는 오르가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라는 느낌, 성적인 느낌에 무딘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깐,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38살로 산악회를 운영하는데 그 모임에서는 아주 행복해 해요. 남편은 안에서 만족 못하니까 밖으로 도는 것 같아요. 나는 육아에 시달려 마음이 오그라들고 남편이 장손이라 시댁에서(은근히 아들 낳으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평소 성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은 부부간의 성관계에서도 소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명화씨가 남편과의 성관계를 아주 꺼리게 된 데는 이미 그 해답을 명화씨가 가지고 있다며 인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명화씨는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시댁에서 장손의 아내로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온 성에 대한 잘못된 교육과 성적 매력 없는 머슴에 같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 사실 명화씨는 여성스러운 귀여운 외모를 가진 깔끔한 인상이다-과 남편과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다른 참여자들과 인도자의 말을 듣고 명화씨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한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 남편과 이제 부끄럽다고 생각 안하고 건전한 가족생활을 위해 한번 해 볼게요. 반드시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 봐야겠어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주눅 들지 않아야 부부간의 성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하천은 남녀간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랑은 두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다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합의하에 만나는 일이다." 라며, 남성들에게 "여성의 몸은 심리와 끈끈

하게 결부돼 있고 너무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의 몸을 다루려면 여성의 심리를 먼저 공부하라”<sup>13)</sup>는 조언을 한다.

#### 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어쩌면 내밀한 부부간의 성관계의 불협화음보다 말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사례는 2004년 상반기 5회차에서 김혜련의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을 읽고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이 날 다른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보다는 주위에서 이혼하거나 이혼의 위기에 있었던 친구나 친지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거의 끝날 무렵 함께 참여한 이웃의 조심스런 제안으로 이혼을 준비중이라는 참여자에 대해 상담분위기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어렵게 말문을 연 참여 당사자인 박지민씨의 말을 우선 들어보자.

이혼을 준비중에 있거든요. 서서히 준비중이에요. 저는 직업을 계속 갖고 있어요, 8년 연애해서 결혼한 지 4년 되었는데, 잘 안 맞아요. 남편이 생활력이 너무 없어요. 할 수 없이 정 때문에 결혼했어요. 헤어지고 싶을 때마다 남편은 늘 놓고 있는 시점이다라고요. 아이가 백일까지 집에서 놀았어요. 처음에는 생계 유지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몇 달전부터 심각하게 남편에게 이혼해 달라고 해도, 이혼은 안 해준다고 해요. 지금은 별거라도 하고 싶어요.

박지민씨는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래서 연애시절부터 자신이 주로 일을 해서 데이트 비용을 내고, 결혼해서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는 아이 양육을 위해 집에서 일을 하게 된다.

저는 집에서 공부방 일하는데, 남편은 방에서 TV보고, 컴퓨터로 고스톱만 치고, 빈둥빈둥 놀면서도 밥 차려달라고 하고... 저는 밥하고, 청소하고, 그이 심부름, 예를 들면 물 가져오라는 등 담배 심부름 등까지 다하지요. 남편은 말이 아주 거칠어요. 싸우면 물건을 던지고 해요. 우리가 싸우는 도중에 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민씨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역기능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특성<sup>14)</sup>을

13)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서울 : 이프, 2000), p.185.

14) “성인아이는 알코올 중독, 일중독, 도박중독 등 중독성이 있는 가정이나 아이들을 적절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지 못한 가정, 지나치게 엄격하고 냉랭한 가정, 부모의 생각과 관습을 자식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가정 등,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러한 성인아이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심리적 증상은 우울, 걱정, 자살과 자살충동, 약물중독, 낮은 자존감, 성격장애, 병적인 공포심, 병적인 흥분, 성기능 장애, 의심, 친교의 장애, 의식의 분열, 무기력감, 불평불만, 과도한 분노, 낮은 극복력, 수동적·공격적 성격, 과도한 의존성, 오락이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정체성 혼란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물 의존성, 섭식 장애, 만성적 통증 증상, 긴장과 편두통, 호흡 작용과 관련된 문제, 위궤양, 대장염, 소화기상의 문제, 변비, 설사,

지닌 것 같아서 인도자는 확인차 남편이 자라면서 가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남편은 섬에서 자랐는데, 시어머니도 말이 거치세요. 남편은 평소에는 온순하고 세심한 편인데, 화가 나면 아주 거칠어져요. 일도 화가 나면 나갔다가 안나갔다가 해요. 진득이 일을 하지 못해요. 자기 맘에 안 맞으면 당장 그만두죠.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예요. 어머니는 섬에 남아 계시며 일을 하시고, 아버님은 물에 나가 돈을 버셨대요. 자라면서 어머니께 많이 맞았나봐요.

지민씨의 남편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머니로부터 신체적인 구타와 언어적인 학대를 받으며 정서적인 이해나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써 무기력하고, 의존적이며 병적인 흥분과 공격성을 보이는 성인아이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간의 성관계에서도 저는 둘째에 대한 임신 불안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둘째를 가지게 되면 이혼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싶어, 둘째가 생기면 일 그만둔다고 하면, 남편은 안 된다고 말려요, 혹시 이혼을 하게되더라도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지민씨의 이혼 준비는 둘째를 안 가지는 것과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지민씨 남편은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아이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지민씨의 자기고백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은 이혼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결국 이혼하는 것도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은 상담치료의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독서치료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원칙이다. 지민씨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시간이 끝난 후 인도자인 나는 이혼과 관련된 다른 참고할만한 책과 성인아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 안내<sup>15)</sup>를 하였다.

이후 지민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원만하지 못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통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 문제 중의 하나는 성에 대한 무지였다. 지민씨는 ‘관계를 가지기만 하면 곧바로 임신이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과의 성관계를 꺼리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후 이웃에 사는 다른 참여자의 도움으로 부부간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대화의 창구까지 만들어져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한다. 물론 이 부부의 문제가 원만하지 못한 성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민씨 남편의 문제는

수면장애, 근육 긴장 등의 신체적 증상까지 동반하게 된다고 한다” 김경숙,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 서울: 한울, 2004), pp.38-39.

15) 이혼과 관련된 책으로는 브루스 피셔, 로버트 엘버티, 『다시, :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셀프 리빌딩』 이경미 옮김, 친구미디어(2004)이었다. 성인아이에 대한 것으로는 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규장문화사(1995)와 C. L. 화이트필드,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김용교·이인출 옮김, 글샘(2000) 과 휴 미셜다인 『원만한 정서생활을 가로막는]뎀에 벤 어린시절』, 이종범·이석규 옮김, 가톨릭출판사(1987) 을 권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성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소원하던 관계에 대화의 창구가 마련된 계기는 지민씨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남편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였다고 볼 수 있다.

### 3. 자녀관계에서 마음상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부들의 가장 관심사는 자녀교육이었다.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된 동기도 자녀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 독서지도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다. 독서치료는 생소한 용어지만 독서지도와 관련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강좌명이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 교실'이었어도 크게 거부감 없이 수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반에 아이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다가 4회차 즉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지나서야 독서치료는 우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내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가장 할 말이 많은 주제가 자녀와의 관계여서 몇몇 상황과 치유서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내내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였다. 여기서는 몇몇 참여자들의 사례만 들어보고자 한다.

#### 가. 자녀에게 준 상처

우선 자신이 아이에게 학대하는 줄 모르다가 책을 읽고 학대하는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학대받은 아이들을 읽었는데, 대부분 부모님에게 던지는 말들이었어요. 객관적인 부분에서 부모들에게 해결방안을 주는 책이었어요. 내가 학대하는 부모 우리 아이가 학대받은 아이의 입장이구나 하고 읽게 되었어요. 엄마가 화가 굉장히 났을 때는 차마 하지 않아야 할 말도 하는데, 그건 '독이 든 사과'를 아이에게 먹는 것과 같아요. 이 책 읽으며 큰 아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은연중에 큰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많아서 큰 아이에게 이래야 한다는 식의 말로 야단을 많이 치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어요. 읽으면서 큰 아이가 10살인데 1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특별한 경우가 몇 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심한 말 한 것, 집에서 학습할 때 등짝 때린 장면들요. 그러면서 '내가 치료받아야 할 환자구나'하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 책에서 아이들이 매 맞으며 속으로 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쏘였어요. 그래서 어제 아이에게 야단 맞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보았어요. 아이는 엄마가 야단을 치면, "아이 짜증나, 쌍~~"하며 속으로 엄마에게 쌍시옷 섞인 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단칠 때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고 매를 들어야겠다고 절실히 생각했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책을 옆에 비치해두고 내가 치료하면서 봐야겠다 생각했어요.(2003-하반기, 6회차, 이희연)

이희연씨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통해 이전에는 아이에게 학대인 줄 모르고 했던 자신의 억압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학대에 대해 주목한다. 희연씨는 이를 곧 아이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아닐까 하는 자신의 문제로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아이에게 엄마에게 야단 맞았을 때의 기분을 물어보면서 아이에게 꾸중할 때 신중하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치유서로서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으로 꼽았다.

마음속의 그림책을 보고 우리 큰 아이에게 적용해봤어요. 큰 아이는 7살이고, 동생은 이제 돌이 지났어요. 큰 아이가 요즈음 동생한테 질투심이 많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어항 속 물고기화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그리고 자기만 상어를 그려 놓았어요. 해석을 읽어보니 자기방어를 위해 아이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그리고 어항 속의 물이 담긴 수위가 처음에는 낮았는데, 계속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빠를 사자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엄마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많이 혼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즈음 동생을 괴롭혀서 엄마, 아빠에게 많이 혼났거든요. 이제, 이 결과를 애 아빠에게 말하니까 “시기 지나면 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어서인지 알고 나니까 걱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해 엄마한테 혼나도 “엄마 밉다” 정도로 이야기해요. 아이가 지금 혼자 굶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도 맞았어요. 요즈음 들어 하루종일, 아침부터 잠 잘 때까지 야단을 맞고 있는 큰 아이를 보면서 자제해야지 싶으면서도 막 화가 나니까 계속 야단을 치고 매를 들게 돼요. 올 봄에 동생이 백일쯤 되었을 때 동생에게 해꼬지해서 매를 들었을 때 아이가 “엄마 죽어뿌라”하고는 펄펄 울었어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말인 줄 아니까요. 저는 교육 차원에서 때렸는데, 너무 의외의 말을 해서 놀랐어요. 노력을 한다고 하는 편인데,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지 감이 안 잡힙니다.(2003-하반기, 6회차, 김정민)

김정민씨는 「마음속의 그림책」을 읽고 요즈음 동생 때문에 잔뜩 우울해있는 큰 아이에게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아침부터 잠 잘 때까지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로서의 주부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혼란스럽고 자신이 없다.

옛날에 비하면 요즈음 애 키우기가 아주 쉬워졌다고들 한다. 우선 아이를 적게 낳는데다가 질 좋은 우유도 풍부하고 옷가지, 장난감도 넘쳐 나며 의료시설도 좋아졌다는 점 등을 든다. 그러나 핵가족의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문제, 중년층 주부들에게 자녀 교육문제는 부담일 뿐만 아니라 불안 요소로 점점 커가고 있다. 이웃 또는 친척과 단절된 속에서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이 혼자서 한 인간의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은 전통사회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부의 불안을 겨냥하여 각종의 육아·교육 정보가 상품의 형태로 침투, 또 다른 형태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sup>16)</sup> 주부들에게는 무엇보다 경험적인 육아와 교육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데 육아 정보, 교육정보가 넘쳐나지만 상업화되어서 불안심리를

더욱 조장하기도 한다.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자식을 똑똑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자식자본주의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삶보다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게 된다. 위의 두 책 「학대받은 아이들」과 「마음속의 그림책」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으로 참여 주부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왔던 자식교육에 대해 자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에 대해 가장 인상에 남는 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책들이다.

아이들은 형제간의 서열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 특히 동생을 본 큰아이의 스트레스는 만만찮다. 이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만 쏟린 애정을 주위로 분산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 막내를 보면서 큰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하면서 새삼 큰 아이가 참 힘들겠다 싶어요. 큰아이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외할머니 손에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유대관계가 깊어요. 외할머니가 자기 마음 아픈 것 알아주니까 아이는 많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2003- 하반기 6회차 임경아)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렇듯 아이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친인척이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사회적이건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풍토를 바꾸어서 사회공동체가 나누어질 수 있는 지원체제가 시급하다.

#### 나. 부모 역할에서 오는 마음 상황

주부들은 자녀가 어리면 어린대로, 자녀가 크면 큰 대로 가져야할 자녀교육에 대한 지침과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찾는다.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들이 흔들려요. 우리나라에선 공부를 우선 치고 나가야 하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예체능 과외를 시켜봐도 공부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정말 막상 성적을 받아보면 의연해지기 힘이 들더라고요. (2003- 하반기, 6회차, 정준영)

주부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성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교육에 대한 자신의 소신마저도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이 또한 마음상함이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지식교육, 성적에 따른 출세우기 교육 정책에서 비롯된 학벌중심의 사회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

16) 박혜란, “이 시대에 주부는 할만한 직업인가 : ‘현모양처’의 심리학,” 또하나의 문화, 제6집 (1990), pp.75-76.

문제이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더 잘 안다.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를 아이에게 들켰을 때 부모는 당혹스럽다.

한번은 아이가 “엄마는 왜 명령만해”해서 놀랐어요, 아이를 한 인격체로 봐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애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행착오 겪는 것도 부모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2003-하반기, 6회차, 김정민)

아이를 한 인격체로 대해야 함을 알면서도 무심결에 내뱉는 굳어진 말들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언어를 개발하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대해 이하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특히 전담해서 기르는 부모의 자유롭고 올바른 언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어머니는 삶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움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스러운 모습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무의식의 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sup>17)</sup> 고 한다. 치유서 읽기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어떤 어머니상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야 지 지금까지의 생각을 재배치하고 조정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다.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마음 상함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주부들은 학부모라는 역할을 또 해야 한다. 여기에서 오는 마음 상함도 만만찮다.

요즈음은 아이 문제로 부부관계까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얼마전 ‘죽은 시인의 사회’ 여성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큰아이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해서 겪은 일이 떠올랐어요. 생활부장 선생님이 규격화된 복장 규율에 대한 이야기며, ‘이제 너희는 여성이다’라며 시키는 정선교육 같은 것이 참 거슬렸어요. 교복을 정할 때 남자 선생님들이 원피스를 반대하는 이유가 ‘임신복 같다는 거였어요. 참 어처구니 없었어요. 어린아이 시키는 양성적이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중학교 입학이후부터 우리 아이는 좀 남자같은 구석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여성상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우리사회가 여성을 한 인간으로 봐야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40, 50대 선생님들은 보수적인 사고로 교육을 시키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풍토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즈음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이가 커서인지 부부간의 성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순간 잡아줘도 좋고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만족해요.(2004-상반기, 4회차, 정준영)

17) 이하천, 전게서, p.174.

「아주 작은 차이」에서 저자가 말한대로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아주 작은 차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빚는다'는 것이 학교 사회에서도 선생님들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이 또한 마음상함이다. 이런 정준영씨의 말에 '19세기의 학교에,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독서치료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 다음으로 그를 둘러싼 사람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사람 환경 못지 않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과도 마주치게 된다. 결국 독서치료는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사회의 정신건강도 같이 돌보는 계기를 준다.

오늘이 남구교육청 장학사 시찰날이에요. 오늘을 위해 우리 딸아이가 4학년인데, 며칠전 알림장에 '어머니들 유리창 청소'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보고도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갔거든요. 근데, 다른 반 어머니들은 모두 유리창 청소하러 왔는데, 딸 아이반 어머니들이 아무도 안 왔나봐요. 다들 미분거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아주 화가 나서서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야단을 많이 치셨나봐요. 우리 아이는 많이 예민한 편이라 그날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에서 마음을 많이 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길 들으니 딸아이 성격 이는 저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놀러 안가고 청소하러 갔었다면 우리 아이가 마음 졸이지 않았을텐데요. (2003-하반기, 9회차, 서정남)

학교의 권위적인 학교운영 행태는 여전하다. 학교의 운영주체로서 학부모가 나선 지 십 여년이 지나도 학부모는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기 힘들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는 전업주부인 학모에 여러 모로 의존하며 운영되고 있다. 학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라는 명목으로 중요한 학사 운영 방향이나 예산결산 집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중요한 학교 운영에는 제한적인 참여밖에는 못하고, 급식, 청소, 각종 행사의 뒤치다꺼리 등 집안 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맡겨진다. 이 또한 마음상함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왜 항상 학교의 부름에 스텐바이 상태여야 하는지 화가 나요. 우리 작은 아이는 1학년인데, 그 담임선생님은 5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옛날 훈장같은 선생님이에요. 어제 숙제가 밤송이 가져오기였어요. 도시에 밤송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교외에까지 나가서 밤송이를 구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알림장 체크해서 아이들 준비물 챙겨줘야 하고요. 특히 1, 2학년 숙제는 엄마들 숙제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모이면 1, 2학년은 '엄마 평가'라고 입을 모아요. <마음의 병을 고친 사람들>을 보면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적인 연계가 너무 부러웠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가정에서 못 돌보면 학교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2003-하반기, 9회차, 정준영)

우리 나라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결과적으로 학교가 맡아야 할 것을 상당 부분 전업주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부들은 아이 양육과 교육을 하면서 부모 역할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

부모들은 대체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한다. 아이의 성장단계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아이를 갖게 되면 개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역할에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의 역할로부터 회피한다는 것은 자신의 발달로부터 회피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미숙한 나르시시즘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오직 유아 때에만 아이를 다룰 수 있다. 그 부모는 너무나 미숙하여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어떤 부모는 유아를 아주 싫어하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유아적인 면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일 수가 있다. 아이 갖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기르면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sup>18)</sup>

발달적 독서치료에서 주목하는 면도 이러한 점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애주기마다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내면의 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심리 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서치료에서도 자아 성장을 방해하는 억압적인 요인, 즉 마음상함이라는 정서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자신에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마음상함을 치유하고 앞으로 다가올 발달과제를 미리 준비하여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마음상함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 4. 시집관계에서 마음상함

한국 기혼 여성들은 ‘졸업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시집살이’<sup>19)</sup>, ‘시집, 아주 특별한 가족’<sup>20)</sup>을 시집이라며 결혼이후 새롭게 맺은 시집 식구들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사연으로 속앓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여자들이 시집과의 관계에서 주로 호소하는 마음상함은 결혼과정에서 혼수 문제,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 남아선호사상의 온상인 불합리한 제사 풍습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 가. 전통적 결혼풍습에서 받은 상처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는 흔히 결혼은 당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양 집안 부모들간의 체면치레로 얼룩지는 경우가 많다. 체면치레의 대표적인 결혼 풍습은 혼수와 폐백, 상음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혼 당시 혼수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김정민씨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마음상함이 있는 지 알아보자.

18) 남명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장애(서울 : 학지사, 2004), pp.83-84.

19) 고영애, “졸업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시집살이,” 또하나의 문화, 제6집(1990), 전개서, pp.97-106.

20) 김별아, 식구 :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서울 : 베텔스만, 2005), pp.160-164.

오늘 <아침마당>에 혼수문제가 주제였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결혼 전날 파혼을 생각할 정도로 맘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게,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라는 오기도 생기대요. 살다보니 지금은 시어머니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때는 제 입장에서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친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집에서 도움 받을 처지가 아니어서 제가 벌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하며 더 해오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은 나도 자식을 낳고 살아보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요. 저는 그때 결혼이 뭔지, 혼수가 뭔지, 예물이 뭔지 잘 몰랐어요, 친정어머니가 나서서 챙겨주실 형편이 안되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했는데, 저는 그런 것 몰랐어요. 그런 것 몰라서 맘이 많이 상했어요. (2003-하반기, 8회차, 김정민)

김정민씨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장녀로 자라면서 일찌감치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일 처리를 해온 터였다. 혼사에서도 남편 쪽에서는 시어른이 나서는 반면,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결혼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혼수나 예물, 결혼예식의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가운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 전날 파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 김정민씨 경우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양가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결혼을 준비해도 결혼이 파기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 또한 혼수문제이다. 김정민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혼수를) 요구하니까, 얼마 몰래 제 돈 주고 맡았어요. 아직도 친정엄마는 그런 줄 몰라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대치도 높았겠지요. 고모들이 결혼하고 1년은 혼수 때문에 씩었어요. 고모들 대화 중에 '밍크 코트' 얘기에 또 엄청 속상했어요. 고모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라도 못해 준 저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 말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또 남편과 고모들이 싸우기도 했어요.

김정민씨의 혼수문제는 결혼 당시만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시댁에서 트집거리가 되어 결혼할 당시의 상처를 그녀에게 계속 되살리게 한다.

저는 「따귀맞은 영혼」을 보면서 결혼 할 때가 가장 많이 생각났어요. 결혼할 때 저는 참 파란만장했어요. 폐백드릴 때 친정 어머니가 음식 준비 못해서 백화점에서도 못 구하고 결국은 결혼식장의 모형을 사용하였어요. 그걸로 큰 시누이와 남편이 많이 싸웠어요. 그걸 보면서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걸로 평생 기죽고 살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백 음식 때문에 지금도 시댁에서는 두고두고 얘기해요. 아직도 저는 떡집에 폐백음식 보면 못 본척하고 지나쳐가요. 제게는 참 큰 상처였어요.

또한 결혼할 당시 김정민씨는 혼수뿐만 아니라 폐백 음식을 준비 못해서 '평생 시댁에서 기죽고 살겠구나'하는 심정을 느꼈다고 한다. 아직도 그것은 떡집에서 해놓은 폐백음식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

#### 나. 제사풍습에서 받은 상처

한국 사회에서 제사는 가부장문화의 한 상징이다. 남성 중심의 핏줄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첨단을 달리는 21세기 오늘날 기혼 여성들은 제사 지내줄 자손을 얻기 위해 험난한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상에 대한 제사 풍습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주부들은 숙제를 풀지 않고 학교 다니는 심정이 된다고 한다.

어제 직계조상 아니고, 자손없는 조상들 제사 지내는 날이어서 시댁에 갔어요. 이런 집안 제사가면 시누이가 남편한테 꼭 한번씩 하는 말이 “열심히 돈 벌어도 무슨 소용있나, 제사도 못 지내줄 건데” 하시고, 저한테는 “아들 낳으려면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 올케는 그런 생각이 없네” 하세요. 남편은 7남매 중 막내 아들인데도, 시누이는 “동생 불쌍하다”고 계속 “아들 하나 있으면 든든한데”라고 말해요. 그러시면서 백골 양자로 자신의 둘째 아들 줄까? 제사 지내게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에 늘 맘이 상해요. 그래서 남편더러 너무 하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누나들도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하는 말에 더 맘이 상하더라고요. 생각은 그렇게 하셔도 제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저를 배려했다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조금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도 아주 속상해요. (2003- 하반기 8 회차 정준영)

정준영씨네는 딸만 둘이다. 장손이 아닌데도 집안 제사 가면 꼭 주위 시어른들이 제사 지내줄 아들 하나 낳으라고 계속 채근하신단다. 그것도 준영씨에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들으라고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언사로서 이에 또한 마음이 상한다.

저희집에는 제사가 일년에 두 번인데, 아주 진을 빼요. 명절때보다 더 음식을 많이 해요. 신랑은 3남 4녀 중에 장남이에요. 저희는 딸만 둘인데, 시댁에 제사가면 시어머니께서 저희는 누구한테 제사밥 얻어 먹을래 해요. 그리고 어머니 칠순 잔치하면서 손자가 없네 하시길래 손녀는 자식도 아니냐고 했어요. (2004- 상반기, 9회차, 이성희)

핏줄을 중시여기는 한국의 가부장사회에서 시부모들은 대를 이을 자손을 낳으라는 압력과 아들에게 효자를 강요하면서 그 남편을 효자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며느리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성 또한 가부장제 속에서 자기 욕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더구나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일 수도 있다. 이하천은 ‘호주제’와 ‘제사’로 대표되는 이 땅의 가부장제도와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영혼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가시’이며 ‘세균’이라고 규정한다. 이 ‘가시’와 ‘세균’이 노리는 생명체는 일차적으로 힘없는 여성이라고 한다. 며느리에 대한 시가의 눈은 이미 사랑

이 아니고, '이익'이고 '희생'의 이해관계 속에 있을 뿐이다. 지은이는 묻는다. 가부장사회에서 여성만 피해자일까? 지은이가 보건대 남자 역시 피해자이다. 조상 대대로 이어진 뿌리 찾기는 남자를 가족의 논리에 함몰케 한다. 그 결과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오간 데 없어진다. 개인의 자존감에 기초를 두는 영혼의 다원성이 희생되고 만다.<sup>21)</sup> 다행히 최근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호주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 다. 며느리 의무에서 마음상함

여성이 시집갈 때 시집살이에 도움되라고 "귀 막고 삼 년, 눈 가리고 삼 년, 입 막고 삼 년"이라는 말을 해준다.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을 죽이고 시집에 맞추어 살아야 편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그 집 귀신이 되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 혼자 말하는 버릇을 가지게 된다.

저도 시집와서 혼자 궁시렁거리는 버릇 생겼어요. 시누이가 한번씩 집에 오면 긴장이 되어서 궁시렁거리려요. 시누이 입장에서 자기 부모에게 울케가 잘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가봐요. 둘째 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이랑 자주 외출을 했어요. 명절 때 막내 시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왜 들이서만 외출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안 모시고 다니냐는 말에 속이 상해서 '그럼, 고모가 와서 한번 모시고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너희도 한번 모시고 살아봐라'하고 궁시렁댔죠. 부부간에는 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데 시누이 때문에 맘이 많이 상해요.(2003-하반기, 8회차, 김정민)

시집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남편을 둘러싼 모든 가족들이 며느리가 시부모를 잘 모시는지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이다. 고부간의 갈등에 이어 시누이와의 관계도 이런 이유로 불편하다. 오죽하면 '시'자가 들어간 것들은 모두 끄적해서 시금치, 시래기, 시루떡도 먹지 않는다는 여성도 있을 정도일까.

다음 사례는 며느리로서 시할머니도 모셔야 했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해야 하는 시집살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면서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나는 제사가 싫다」를 읽고는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시누이도 (결혼 안하고) 있었고, 시할머니도 계셨는데, 시할머니가 그 때 여든이 넘어서 오래 못 사실거니까 시어머니께서 몇 년만 모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면 얼마나 사실까 싶기도 하고 또 남편이 장남이라서 이하천찌처럼 싫다는 말도 못하고 시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생각보다 오래 사셨어요. 아흔 넘어 돌아가셨으니 10년을 모신거죠. 그리고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시어머니가 중풍이 들어서 시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할 형편이 되어서 시할머니는 작은댁에서 모셔야 했어요. 근데,

21) 김정근, "가부장 사회와 마음의 상처," 출판저널(2005, 1), p.131.

작은어머니는 싫다 좋다도 아니고, 한다 안한다도 아니고 표정이 참 묘했어요. 그걸 보는 제 심경은 참 복잡했구요. 작은때에 가신지 1년 정도 지나서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뒤 한 3년 뒤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참 입이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아픈 사람 입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요리 잘한다는 시누이 들은 한번도 김치 한번 담궈준 적 없이 어머니에게 잘 못해 준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제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서운하고 속상한 건 시할머니, 시어머니 초상을 치르고 나서도 아무도 저보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들었을텐데 시어른들 돌아가셔도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2004-상반기, 9회차, 박두리)

박두리씨는 그 연배에 보기 드물게 시어른 봉양을 10년 넘게 하며 살았다. 당연히 시어른 봉양을 만끽해 나가야 할 의무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시집에서는 자신들의 부모를 봉양해온 박두리씨에게 '그 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하지 않아서 몹시 맘이 상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실망한 박두리씨는 시댁 식구 거두는 일이 부질 없는 일임을 알았지만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었다고 한다. 박두리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이 책을 읽고 시동생에서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시동생은 저희집에서 나가 사는 것 정말 생각 안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데리고 살 수도 있는데, 왜 자기가 내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게 못 마땅해요. 이 집도 우리가 산 집인데, 자기집처럼 너무 스스로없이 쓰는 것도 맘에 안 들어요. 어머니 아프셨을 때 시동생이 나갔어야 했어요. 이 책을 보니까 호주제 그것도 더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줄 그어 놓은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제사랑 별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했던 것이 참 부러워보였어요. 아이도 결국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낳았어요. 그 전에는 계속 유산이 되었어요.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집에 장꼴이 돌아나 있는데도 저 혼자 어머니 목욕시켰어요. 두 사람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축쳐진 사람이 엄청 무거워요. 그걸 몰라서인지 안도와 주더라고요. 시집살이는 일방적으로 한 여자의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자기 엄마 죽었다는 서러움만 있지 나보고 수고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친정집의 반응은 '이제 니 고생 끝났다'였어요. 그 때 이 책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시동생에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왜 진작 그 말을 못했을까 싶네요.

박두리씨는 「나는 제사가 싫다」를 읽고 그 동안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다 토해내는 듯했다. 아이도 시어른 봉양할 때는 안 생기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임신하게 되었다니, 정말 시집살이가 고되었던 모양이다. 뒷 얘기를 들으니 시동생은 그 해 9월에 분가를 했다고 한다

시부모 봉양의 의무는 왜 떠느리만 지어야 할까. 이하천은 "내 아들과 함께 사는 한 너는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나는 제사가 싫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떠느리는 자식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많은 문제가 떠느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당신 아들이 죽어보십시오. 또 내가 당신 아들과 이혼이라도 해 보십시오"

시오. 나는 당신 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들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이입니다.” 많은 주부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며 심리적으로 시집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 5. 일상생활에서 마음상함

여기서는 일상생활 중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나와 타인간의 관계나 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마음상함과 삶 자체가 주는 마음상함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즉 대인관계에서 오는 마음상함, 화가 날 때의 마음상함, 자신의 간헐 생각에서 마음상함,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나이들어 간다는 것, 죽음에 대한 마음상함의 경우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삶은 고해다’라는 말처럼 생로병사의 모든 측면이 마음상함이다.

나이든 어른을 보면서 문득 나이들이나 노년기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위의 노인들을 보면서 노후대책을 생각하기도 한다. 늙어간다는 것도 마음상함이다.

90살된 시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늙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노인들은 무슨 낙으로 사실까 싶어요. 시어머니만 봐도 친구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만나는 재미를 낙으로 삼으시는데, 시할머니는 경로당 말고는 낙이 없어 보여요. 손자(우리 신랑)가 있긴 한데 다정하지도 않고 한번씩 못마땅한 부분 자식들이 지적하는 걸 보면 안되어 보이기도 해요.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되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상함인 것 같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2003-하반기, 8회차, 임경아)

다음은 화를 참다가 병을 얻은 주부의 이야기이다.

저희 신랑은 싸우면 입을 닫아버리는 성격이에요. 시댁이 경주인데,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뭐라고 하셔도 제대로 대꾸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 남편이라도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절대 입을 안 열어요. 제가 남편에게 왜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말 안 해주냐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니가 참아라 해요. 현재 저는 유방암을 수술받고 항암치료 중이에요. 제 병은 참아서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방암 수술 받고 난 후로는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할 말 하는 편이에요.(2004상반기, 8회차, 최수미)

최수미씨의 경우는 할 말을 못하고 참다가 화가 되어 그것이 암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재를 하지 못하는 남편도 화의 원인이다. 턱 낮은 스님은 그의 책 「화」에서 화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라고 한다. 내면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화도 다스릴 수 있다면 억압된 내면의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독서치료도 우선은

마음이 아프다고 울고 있는 자신 내면의 웅크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죽음을 생각해도 마음상한다.

아이들 보고 맨날 책 읽으라, 숙제하라 해놓고 다 못 읽어봐서 죄송해요, 지은이의 말 보는 순간 이젠 딱 내 얘기다 싶었어요. 그리고 인내력과 경청하기 부분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죽음에 대비하는 삶의 자세 부분이 제일 와 닿았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가족한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2004-상반기, 2회차, 최수미)

마음이 상해야 인간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참여자는 「따귀맞은 영혼」을 읽고 자신의 마음상함을 돌아본다.

이 책을 보고 '마음 상함'을 가지고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게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속이 상할만큼 상해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세 네번 참고 삼켰어요.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마음상함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 나를 표현하지 못해 혼자 울었던 것이 다 마음상함이었구나 싶었어요. 내 마음이 아닌 말들, 그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2003-하반기, 8회차, 김명화)

명화씨는 억울한 것을 표현 못하고 혼자서 참는 것도 마음상함이라는 것을 「따귀 맞은 영혼」을 읽고서야 깨달았다고 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고 살면서 마음이 상해봐야 철이 든다'는 말들은 마음상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그 원인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말이다. 상처는 드러내어야 치유된다고 한다. 모든 상황을 무조건 참고 수용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고 실천해온 자신의 간헐 사고도 마음상함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책을 읽거나 강좌를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막상 일상생활에 들어오면 그대로 실천이 안된다. 이 또한 마음상함이다.

오히려 여기서 (아이들에게 상처 준 일 반성하고 잘 해야겠다고) 말하고는, 집에 가서 제대로 안되면 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기도 해요. 스스로에게 패배감이 들기도 하구요. (2003-하반기 8회차, 임경아)

여기 오면 마음이 열리는데 집에 들어가 현관문 닫으면 다시 문이 닫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풀어요. 그런 갈등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몰랐으면 모르고 내 방식대로 살텐데 요즘엔 머리에 어림없이 떠오르는 하는데, 어떻게 못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2003-하반기, 8회차, 정준영)

배운 대로 실천이 안되면 자신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결국 패배감마저 든다. 그리고 이전

의 방식과 새롭게 깨달은 방식과의 충돌로 혼란스럽기도 하다. 여럿이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며 다짐을 할 때는 잘 할 수 있다가도 집에 혼자 있으면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배운대로 실천이 안되는 것도 마음상함이다.

다음은 자신의 경우는 아니지만 주변의 주부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음상함의 여러 장면들을 만날 수 있다.

어제 후배랑 친구들이랑 만나 영화보고 저녁 먹었는데, 그 중에 시립합창단 있는 후배가 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3남매(딸 2, 아들 1)인데 아무도 모시지 않고 3명이 똑같이 돈을 내어서 '효도병원'에 모셨는데, 거의 방치하다 싶이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번 면회를 갈까말까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후배는 젊은 20대 후배들과 경쟁하며 매년 오디션보고 시립단원하는 것이 엄청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힘있는 후배에게 종종 밀리기도 하나봐요. 자신은 성악 전공인데, 시향에서 성악 아닌 일반 대중 가요 부르는 것도 서글프고요, 그리고 신랑 입에서 자기 월급에서 장모 병원비 대 주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서 그것도 속상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빠빠로테이'때 아들에게 빠빠로 사줄까 했을 때 면박 당하고, 수능(시험) 보고 엄마랑 영화 보자고 해도 거절당해서 엄청 속상해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직장생활하는데,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을 많이 쓰고 돌아가셨는데, 항상 아버지가 목에 가시였대요. 친정아버지 49제 지내고 나니 친정 식구들이 또 (돈 때문에) 자신만 바라보니까 너무 우울하대요. (2003-하반기, 8회차, 정준영)

노쇠한 부모님 모시는 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이 안 따른다면 자식에게는 큰 부담이고 마음상함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차고 올라오는 후배에게 밀린다는 느낌 또한 마음상함이다.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는 자식에게 거절당할 때도 마음상한다. 또한 친정식구들이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할 때도 마음상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마음 아픔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와 같은 고통의 완화와 치료에 독서치료가 개입한다. 이것은 발달적 독서치료로서, 생활인을 위한 독서치료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주어진 발달과제와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겪는 마음상함은 발달적 독서치료에서 다루어야 할 상황들이다.

## 6. 주부자리에서 마음상함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전담하며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면 어느 사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느낌을 가진다.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은 모든 것이 허망하고 우울해진다.

22) 김정근, "독서치료의 현단계," 도서관문화, 제 46권, 제 2호 (2005, 2), 상계서, p.48.

그래서 우울증(병적인 우울증 외에 일반적으로 기분이 저조해서 무기력해지는 우울한 기분)이 주부들에게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갇힌 상황적 조건 때문인 경우가 많다. 참여자들이 말하는 주부 자리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 대체로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주부의 일을 하잖게 여기거나 사회에서도 주부의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주부로서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올 때가 그것이다

가정주부로서 여성.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설 수 없을까?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 하니 남편이 의외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힘이 들어서 그만 두었어요. 가정일과 아이 양육까지 다 하면 직장 생활 잘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성들은 가사에서 면제되지만, 여성들은 가정 안팎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가정내에서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기대로 채워지면서 내 꿈의 실현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녀교육을 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주부로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늘 안고 살아요. (2003-하반기, 4회차, 임경아)

여성은 직장일과 가사일 모두를 잘 처리해야 바깥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무언의 잣대가 여성들을 옥죄인다. 그 부담감으로 직장일을 어렵게 하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자신의 꿈을 아이에 투사하며 아이들에게 매달리게 된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역할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 학부모, 아이들 교사 등으로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이름 세 자를 가진 한 인간으로는 무시된다. 그래서 자신을 찾기 위해 일을 가지려고 하면 남편이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며 묶어두려고 한다.

문제 있는 집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문제가 생길 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남편들이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클레임을 걸거든요. 여자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서 집에 묶어두더라고요. 일을 하거나 사회활동하면서 남편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축시키는 행동할까봐 싫어해요. 남편은 저 자체로 안 봐주고, 어머니, 아이엄마, 아내만을 기대해요. (2004-상반기, 4회차, 김명화)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는 잃어가고 가족들의 요구에 맞추어 살아가는 집지킴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제동을 거는 남편이 있다.

또한 영화에서 다룬 여성노동자의 힘들고 불합리한 삶은 인정하면서 진작 아내의 고단한 집안일에 대한 부담은 '가족을 위해 당연히 베푸는 사랑이지 이를 일로서 보지 않는다

남편이 영화를 좋아해서 가끔씩 가족들이 골비 위이듯이 함께 가는데 사실, 저와 영화 취향이 달라 함께 가는 것이 썩 즐겁지만은 않아요. 남편은 무조건 사색적인 것 좋아해요, 그래서 며칠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하는 여성 철도공무원의 이야기인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를 온가족이 보았어요. 남편이 이 영화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여성 노동자 문제를 아주 잘 그려냈다고 행복해 했지만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영화보고는 제가 그랬어요. 나도 집안일에 대해 급여와 시간의 근무수당 달라고 했더니 그냥 피식 웃어버렸어요. (2003- 하반기, 4회차 정준영)

보수도 없고 정해진 일도 없는 가정이라는 직장에서 주부의 자리는 한없이 낮다. 아이에게조차 하는 일 없다며 타박을 들으면 정말 어떤 기분일까? 계속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하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하나? 참 갈등이지 싶다.

저는 결혼후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주부 7년차예요. 하루는 큰 딸이 "엄마는 집에서 하는 일 없으면서 왜 실내화 안 빨아놨어"하는 말에 뭐라 대꾸 할 말이 없었어요. 가정이라는 직장에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지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속제로 남아있어요. (2004- 상반기, 4회차 이성미)

가사일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인식은 가정 살림을 해본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어렵게 시작해보지만 이것은 가정살림과 사회생활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에 여성 자신만 굶으며 두 손을 들 게 만든다. 다시 가정에 돌아와 존재 가치를 가지기 위해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매달려 보지만 자기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러한 주부들은 경제적 자립을 끊임없이 꿈꾸고 시도하지만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좌절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원인이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역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열중하는) 이유(중 하나)가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되어서, 혼자서는 (생활이) 안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선가 본 적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된다는 것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저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마땅한 일이 없어요. 큰 아이 첫 돌 지나고 2년 정도 떼어놓고 일한 적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더 크면 일해야지'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계속 아이에게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구요. (2003- 하반기 4회차 김명화)

하루종일 아이와 씨름 하다보면 남편의 귀가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경험을 주부라면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고 대화를 할 상대, 정서적인 교류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주부는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의존, 의사결정에 대한 의존 등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된다.

이 의존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경제적인 독립인데 아이가 있으면 말처럼 쉽지가 않다. 게다가 마땅한 일자리도 드물다. 그래서 다시 사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독립을 못하는 다른 이유는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하는 가사일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남편만큼 돈벌이할 능력이 없다는 저하된 자신감이다.

가정에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도 일하면서 가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가도 남편이 위기의식을 실제로 느껴 제게 일해보라고 말하면 너무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요. 남편 말처럼 역할을 바꾸어보았을 때 내가 남편만큼 벌어들 자신도 없고 해서 불안해요.(2004-상반기, 4회차 한미애)

전문직을 가지지 않는 한 주부생활 하다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는 한계가 있다. 대개가 영업직 아니면 판매직, 단순노동 등으로 거의 가사일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주부들이 다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계획된 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부가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성 혼자서는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모색해 보지만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부로 있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힘겹게 직업을 가져봤는데, 가사, 육아, 남편 봉양 등으로 너무 힘들어 포기했어요. 스스로 굴레를 못 벗어나고, 할 수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살수 밖에 없는 듯하다. 여기서 변화의 계기는 책도 읽는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봐도 잠깐씩 스쳐지나가는 생각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봐요. 혼자서는 용기를 내기가 힘이 드니까, 어떠한 목적이든 모임을 통해서 함께 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2003-하반기, 4회차 손정애)

가정에서 주부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은 경제적인 의존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남편과 자녀에게 정서적인 의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주부들은 가정에서 의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정 먼저 경제적인 독립을 꿈꾼다. 나름대로 이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부업도 해 보고 문화센터나 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를 들어봐도 자신의 이름을 찾아 나서기에는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야 할 일들이 산재하다.

'가정주부'라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생겨나게 된 것은 자본주의사회제도가 발생된 이후 남성은 산업현장을 전담하며 가장으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여성은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의무를 지우고 여성에게는 육아와 교육을 전담케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모두 개인 가정에게 떠넘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주부의 탄생은 여성 모두에게, 특히 살림을 전담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의 통로가 막힌 여성들에게는 커다란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닐 것이다.

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여 주부들이 마음상함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특별한 문제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아니라, 그저 기혼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마음상함을 저마다의 처한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온 왜곡된 경험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부장 사회에서 왜곡되어 온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자기정체감과 욕구를 창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sup>23)</sup>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혜련은 “조건을 변화시키는 시도는, 여성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정직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분열이나 고통, 불행을 합리화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 자신의 삶을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sup>24)</sup> 결국 주부들이 겪는 마음상함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물꼬는 여러 가지에서 트일 수 있겠지만, 독서치료와 같은 책읽기 모임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자들이 독서치료 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치유적 말하기 과정을 통해 마음상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 마음상함을 크게 여섯 가지 상황, 즉 근원가정, 부부관계, 자녀관계, 시집관계, 일상생활, 주부자리에서 오는 마음상함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 1. 프로그램에 대한 인도자의 평가

이 프로그램에서 치유적 말하기 활동은 참여자간의 상호공감 속에서 자신의 현재 고민을 털어놓는 창구 역할한다. 위에서 참여자 박지민씨의 사례처럼 김혜련의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을 읽고 토론하는 중에 함께 참여한 이웃의 조심스런 제안으로 이혼에 대한 상담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23)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서울 : 또하나의문화, 1995), p.194.

24) 상계서, p.190.

변모를 하게 된 경우나 알리스 슈바르처의 「이주 작은 차이」를 읽고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자신없고 힘들어하는 김명화씨에 대한 상담 분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상담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야기가 깊어지면 이야기 주제가 좀더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박지민씨의 경우 이혼문제가 남편의 이해 문제로, 즉 성인아이에 대한 이해 문제로까지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리고 김명화씨의 경우도 남편과의 성관계의 문제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성에 대한 지식의 차이, 편견들, 피임의 문제 등으로 발전되었다. 나아가서 결국은 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편과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고, 이런 부부간의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것은 불평등한 지위에서 비롯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자는 참여자들과의 이야기 맥락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 즉 남성의 성, 성교육, 이혼의 문제 등이 나타났을 때 당황스러웠고, 이후 그러한 상황에 대한 치유서를 찾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그리고 치유적 책읽기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동참하게 한다. 참여자 정준영씨 남편은 사이트 사토루의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를 읽고 글까지 적을 정도였다. 또한 정준영씨는 이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한다. 이혼하고 딸과 사는 친구가 집안 사정상 병간호를 하느라 서울을 왔다갔다 하는 얼마동안 아이를 방치 아닌 방치를 했더니 아이가 빗나가서 고민하길래 이 책을 권해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독서치료 모임에서는 주변 사람들까지 돌보게 된다. 여기서 참여자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변수가 참 많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상황에 1-2개씩의 매체를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회자에 주어진 매체에 대해 참여자들은 연구자(인도자)가 의도한 대로 또는 인도자가 해석한 대로 매체를 수용하고 반응하지는 않았다. 책을 읽어오지 않는 참여자의 맥락 파악의 오해로 엉뚱한 논의로 흘러간다는지, 누가 먼저,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이야기의 주제가 잡힌다거나 하는 등이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았다.

예를 들면 '마음상함이란 무엇이며 이는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상황으로 「따귀맞은 영혼」을 읽고 토론하면서 김정민씨가 먼저 혼수문제로 입을 열면서 그 날의 주 테마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고친 사람들 이야기」를 읽고 토론하는 날은 남구교육청 '장학사시찰날'이어서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학교 운영 문제, 일부 선생님의 보수적인 교육관, 왕따 문제 등으로 화제가 이어졌다. 이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주부의 마음상함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왕따' 문제를 다룬 상황을 추가하여 넣기도 하였다. 또한 「내 딸이 여자가 될 때」를 읽고는 아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며 아들 키우는 부모에게 지침이 될만한 책을 권해 달라는 참여자의 부탁도 있었다. 그래서 인도자는 관련 책들을 보면서 관련된 치유서를 찾아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도자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변화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독서치료에서 효과란 이런 작은 내면의 균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부들의 마음상함의 상황은 위에서 제시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각자 처한

상황마다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유사한 상황이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든 주부들은 많은 공감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독서치료 강좌는 다른 강좌들과는 달리 수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방법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면 성찰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앎과 삶이 겹들면 더욱 자신을 자책하기도 한다. 독서치료는 단순히 책읽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개인적인 독서 행위가 사회적인 나눔의 장으로 탈바꿈된다. 여기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도 있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위안도 받고 누구에게도 쉽게 열지 못했던 마음 아팠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오그라든 마음이 활짝 퍼지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정서를 어루만지게 되면 인식도 바뀌고 나아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독서치료의 과정과 유사하게 김혜련은 이혼한 여성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에 대해 직면, 이해, 복원의 과정은 혼자 할 수 있거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과 끈질긴 노력으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럿이 동참하는 의식화 과정이다. 의식화 과정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의식화함과 동시에 함께 의식의 변화를 갖는다. 이 과정은 경험을 드러내기 위한 ‘말하기’로 시작될 수 있다. 잃어버린 말을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욕구와 느낌, 사고를 찾는다는 의미이며, 곧 잃어버린 삶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sup>25)</sup> 종종 내가 없어지는 듯한 경험하는 주부들도 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말을 찾고, 욕구를 찾고, 새로운 참자아를 발견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독서치료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스캇 펙이 “사랑이란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 줄 목적으로 자기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하듯이 ‘사랑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은 물론 가족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지를 다지는 데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책읽기다. 혼자서도 이런 치유서를 찾아 읽고 자신의 내면에 말을 걸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책이 ‘침묵의 상담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누고 싶어진다. 그러면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또한 지속적인 책읽기의 계기도 마련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독서치료 체험과 프로그램의 인도자로서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혼자서 책을 읽고 치유의 경험을 하기까지는 자조적인 성격의 모임에서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 치유서를 적어도 20권 이상을 읽고 다른 참여자들과 그 경험을 나누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했을 때 가능했다

25) 김혜련, 상계서, p.194.

즉 이렇게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이 적어도 2회 정도가 지속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치료 모임의 사례도 있다. 즉 1991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한 모임'으로 주부를 중심으로한 출발한 신성회의 경우이다. 신성회의 기초반에서는 24권을 2년 동안 읽어야 혼자서 상황에 맞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전문반에서 활동할 수 있다.<sup>26)</sup>

이 연구를 하며 연구자는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정착화를 위해 12주 강좌에 이어 좀 더 치유서를 읽을 수 있는 후속모임을 꾸리고 여기서의 치료과정에 대해서도 후속연구를 계획하여 본다. 그리고 독서치료를 통해 주부들의 마음상함이 치유될 수 있는지, 그 변화 과정이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여 본다.

끝으로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 여러 참여자들과 보이지 않지만 진행자인 나를 인도해 준 '침묵의 치료사'인 치유서들, 프로그램 과정을 나와 함께 이끌어준 보조 연구자 김은엽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를 가능하게 독서치료가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도서관과 주부로 연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지해주신 김정근 교수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26) 신성회는 가정생활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3권의 책과 테이프를 3개월 단위로 우송하고 한 달에 한번씩 독서그룹 모임을 갖는다. 전체 독서그룹은 기초반 연구반 전문반으로 나뉘어 있다. 기초반은 24권을 2년 동안 읽는 과정이고, 연구반은 필독서를 다 읽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신성회에서 선별한 좋은 책을 매월 받아본다. 전문반은 남편의 외도나 자녀와의 갈등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책 처방'을 해준다. ("독서치유 모임 '신성회' 이영애 상담정보실장", 국민일보, 2002. 6. 12).

к с і